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홍성태/편집인 : 김재원/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전화 02)794-4146/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회의 단체회원은 2014년 6월 현재 23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81,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분야 학술지 44)이며, 개인회원은 45 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 문화사), 메드소프트,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인권엔파트너스,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Cactus communications Korea, Google Inc.,

(주)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NHN(주)MLink Co., Ltd., 총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 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편협 홍성태 신임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이끌어 오신 의편협의 회장으로 임무를 맡아 취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느 학술단체이든 학술지 편집인은 그 단체에서 학문적으로 역량이 뛰어난 분을 모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편집인들이 모인 단체는 진정 우수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또한 우리나라 학술지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 진료 역량을 감안하면 우리 학술단체들이 발행하는 학술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학학문 연구 자체가 선진국들이 앞서고 우리가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 학술지 출판이 선진국 유수한 출판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식정보산업으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여 국내 학술지는 아직 국제경쟁력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모르되 우리가 학술지를 출판하는 한은 국제적으로 훌륭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련에서 보면 우리가 의편협을 만들고 뒤늦었지만 학술지를 글로벌 수준으로 편집출판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의편협 초기와 비교하면 Medline, PubMed, SCI, SCOPUS 등재 학술지가 대거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 Synapse, KoMCI 학술지도 많이 늘어나고 국제적으로 소개되고 인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AAIR는 해당 분야 10 위권 안에 진입하였고 몇몇 학술지가 SCI 분야별 상위권에 포진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연구력이 충분히 뒷받침할 자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노력하면 우리 학술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여 더 효과적으로 학술지가 발전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의편협 회원 학술지를 중심으로 국내 학술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더 올리는 것이 첫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3개를 더 훌륭한 시스템으로 올리고 등재된 학술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학술지 간에 Cascade 또는 Consortium 형태의 전문가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심사와 원고확보에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 회원 학술지 편집인들께서 의편협을 믿고 공적인 개념으로 참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모두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창욱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편협이 더욱 발전하였음을 느낍니다.아무쪼록 우리가 만드는 학술지를 많이 인용하고 좋은 원고를 우리 학술지에 먼저 출판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여 우리 학술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새로 참여하시는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편협 전, 현직 회장단 회동



제7대 의편협 회장으로 취임한 홍성태 교수는 역대 의편협 회장단을 초청하여 의학 학술지 관련 문제와 의편협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월 9일(월)에 열린 전, 현직 회장단 회동은 박찬규(초대 회장), 함창국(2대 회장), 조승열(3대 회장), 박찬일(4대 회장), 임정기(5대 회장), 서창욱(6대 회장) 교수가 모두 참석하여 의편협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편협의 공공이익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사단법인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4 의편협 워크숍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 의편협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CrossRef Product Manager인 Rachael Lammey가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을 주제로 강연하며, CrossRef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또한 CrossCheck 사용 경험이 풍부한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 편집장 또는 간사를 모셔서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 시 : 2014년 7월 1일(화) 오후 3시 30분~6시

장 소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 | | |
|-------------|--|
| 15:30-15:40 | 개회, 워크숍 소개 |
| 15:40-16:20 |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How to and What to Look for, and future plans for iThenticate developments.
Rachael Lammey(CrossCheck product manager) |
| 16:20-16:35 |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1
이윤석(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 |
| 16:35-16:50 |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2
송정환(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 |
| 16:50-17:05 |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3
이장현(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Archives of Plastic Surgery 편집간사) |
| 17:05-17:45 | Current CrossRef services and what's coming next.
Rachael Lammey(CrossCheck product manager) |
| 17:45-18:00 | 종합 토론 |



의편협 회칙 개정

의편협은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로서 대한의학회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조직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자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3월 27일(목)에 열린 2014 의편협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거쳐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 (목적)	의편협은 의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편협은 사단법인 <u>대한의학회 산하의 협의회로서</u> , 의학 학술지의 편집 ... 목적으로 한다.	대한의학회의와의 관계 정립 및 지원에 따른 근거 마련.
제8조 (임원)	의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명 5. 무임소 임원 3명 이내	의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명 5. 무임소 임원 3명 이내	의학 관련 분야의 균형적 학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회장 정원을 늘리고자 함.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4. 차기 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4. 차기 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일반 관례에 따라 총회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선임절차를 구분함.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5. 회원 인준 6. 기타	1. 회칙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및 인준 5. 회원 인준 6. 기타	제9조에 따라 부회장과 위원장은 총회 인준 사항으로 정리
부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발생한다.	1. 이 회칙의 효력은 <u>대한의학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u> 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에 따라 효력 발생일을 명기함.



의편협 제17회 범석상 범석의학상 수상

대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박사 추
제17회 범석상 시상식



대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박사 추모 1주기 및
제17회 범석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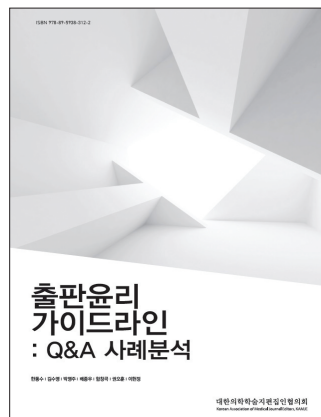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1996년 2월에 발족한 이후 우리나라 의학논문 세계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범석학술장학재단이 수여하는 범석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5월 7일(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의편협 외에도 범석논문상에 신전수 연세대 교수, 범석언론·정책상에 심재억 서울신문 의학전문기자, 범석봉사상에 사랑나눔의사회가 수상자로 선정되

어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의편협 홍성태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편협에서 활동하며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해 애쓴 의학, 문헌정보학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 설립자 고(故) 박영하 박사가 1997년에 기업이윤 사회환원이라는 신념을 펼치고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매년 의학, 논문, 언론·정책, 봉사(2014년 신설) 분야에서 의료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인사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범석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집 제작

2006년 7월 의편협에 출판윤리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단체 회원 학술지의 편집인, 대학, 기관, 개인이 의편협으로 보낸 출판윤리 관련 질문이 약 1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는 출판윤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도 많으며 해가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접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질문에 대해 논의하여 마련한 답변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Q&A 사례분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분석집은 PDF 파일 형태로만 제작되었으며, 의편협 홈페이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메뉴(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qna)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답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분석집이 의학 학술지를 발간하는 관계자가 출판윤리를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과 출판윤리가 더욱 확고히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필진: 한동수, 김수영, 박영주, 배종우, 함창곡,
권오훈, 이현정

발행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일: 2014년 3월 27일

ISBN: 978-89-5938-312-2



2014 APAME Congress 안내

아시아지역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학술정보 교류의 장인 2014 APAME Congress가 8월 15(금)부터 17일(일)까지 사흘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됩니다. 'Medical Scientific Writing and Publishing in Developing Countrie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학 학술지 관계자의 교류를 확대하고 의학과 보건학 관련 학술지의 질 향상,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월 15일(화)까지 APAME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드 하신 후 이메일을 통해 사전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8월 15일(금) ~ 8월 17일(일)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공식 웹사이트: <http://www.mongolmed.mn/apame/>



제2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개최

의편협에서는 KoreaMed 등재지를 7년 주기로 평가하여 단체 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월 29일(목)에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를 개최하여 1998~2000년에 등재된 학술지 중 14종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의편협이 마련한 자체평가, 실물평가, 협의회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기준 평점 3.0 이상을 획득

한 학술지는 KoreaMed 등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2년 연속 평점 3.0 이하를 받을 경우 등재 자격을 상실하여 KoreaMed 등재심사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재평가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술지는 학술지 정시 납본 심사만 받게 됩니다. 의편협은 학술지 발행일에서 14일 이내에 의편협 사무국에 도착한 학술지를 정시납본된 학술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